

김 교육감 “교사 믿고 맡겨달라”

양현고 온라인 개학 참관... “학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밝혀

김승환 교육감은 9일 전주 양현고 등학교를 찾아 “온라인 개학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수업형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처음이라 혼란이 있겠지만 교사들을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고3 온라인 개학식에 참관해 현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코

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모든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온라인 개학이 수업 형태를 바꾸는 첫 단계 아닐까 싶다”면서 “더 강한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는 만큼 미리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자”고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은 “큰 학교는 교사 연구회도 가능하지만 작은 학교는 교사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교를 위해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온라인 개학 첫날을 비교적 차분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양현고에서는 3학년 이환의 교사가 ‘온라인 학생출결관리 방법’을, 유지는 영어교사가 ‘온라인 수업자료 탑재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사는 “화상으로 출결을 확인하고 시간표를 사전에 안내해 과목별로 ds나 구글클래스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개학이 처음이라 아이들도 혼란스럽겠지만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Blue) 치유를 위한 '마음 행복해지기' 모바일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 블루 ‘마음 감사하기’로 치유”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재학생·교직원 대상 모바일 캠페인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Blue) 치유를 위한 '마음 행복해지기' 모바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블루(Blue)'는 '코로나19'와 '우울함(Blue)'의 합성어로, 전염병 전파에 따른 사회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이르는 신조어다.

9일 호원대 학생상담센터에 따르면 재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활동 축소 등의 단절된 사회관계로 우울감, 불안감, 타인배척 등의 심리적 우울 및 불안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모바일 캠페인은 재학생과 전체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날 시작된 캠페인은 약 300여명의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마음 행복해지기'는 마음 가까이 두기, 마음 감사하기, 마음 칭찬하기의 세 가지 실천적 과제로 진행

된다. 세부 행동 지침으로는 ▷마음 가까이 두기-학과 친구들과 1일 1회 SNS 인부 접하기, 영상 통화하기, 건 강한 취미 생활 즐기기 ▷마음 감사하기-감사 문자 보내기 ▷마음 칭찬하기-칭찬 문자 보내기 등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제한을 QR 코드 및 인터넷 링크를 활용해 접촉은 줄이고 챙겨주기 경험과 칭찬을 받는 경험을 함으로써 단절감과 외로움 극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복한 대학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미지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모바일 캠페인으로 '코로나 블루(Blue)'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음을 살피는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등 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발전기금 유치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약손명가', '쥬얼이고은 에스텍 전주점'으로부터 각각 6백만원과, 1백만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정부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대학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산학협력 MOU'를 체결한 기업체부터 발전기금을 유치하고 있다.

홍순직 총장은 “발전기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실습현장에서 필요한 실습비 지원과 학생개인의 역량에 맞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반도체설계교육센터(센터장 박석환 전자공학부 교수·이하 IDEC)는 도내 시스템반도체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전문 설계업체인 에이디테크놀로지(대표이사 김준석·KOSDAQ 200710)와 인력양성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 IDEC·에이디테크놀로지 ‘맞손’

시스템 반도체산업 기반 마련·우수 인재양성 기대감

전북대학교 반도체설계교육센터(센터장 박석환 전자공학부 교수·이하 IDEC)는 도내 시스템반도체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전문 설계업체인 에이디테크놀로지(대표이사 김준석·KOSDAQ 200710)와 인력양성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손을 맞잡아 지역거점연구소 설립하고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우수 학생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지역발전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전주

지역에 지역거점연구소 설립하고, 전북대 IDEC에서 반도체 특화 교육을 받은 우수 학생들을 연 20여 명 이상 3~4년에 걸쳐 100명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대 IDEC 교육과정에 에이디테크놀로지의 'Sc 특별 트랙'을 신설·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인력 양성에도 이 기업과 협력을 공고히 한다. 대학원 인력양성은 전북대 BK21-PLUS HOPE-IT 사업단과 협력한다.

BK21-FOUR 대학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JIANT-IT' 사업단 가족회사로 참여해 시스템반도체 산학연 캡스톤 디자인 교과과정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에이디테크놀로지 전문가 등이 팀을 구성해 기업에 산적해 있는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우수 대학원생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북대와 에이디테크놀로지의 협력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는 인력 양성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지역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지역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지친 학생들 목소리 청취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 가져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8일 대학본부동 2층 총장실에서 진행됐으며, 김우영 총장, 김성식 학생처장, 학생팀장, 수업팀장, 학생처 직원, 총학생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상황 및 대학 현안 사항에 대한 협의, 대체강의(비대면 수업)연장, 종강 연기 등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학생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대체강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

에 대해 협의했다.

담당부서인 학생처는 익숙하지 않은 원격수업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는 신속히 조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총장은 “많은 학생과 교수 및 강사들이 원격수업에 따른 낯설음과 불편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학본부의 입장을 성숙한 어른스러움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